

내신 기출

문학 지학사 (하편)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

[교재 구입]

<<내신 기출 문학 지학사-하편>>

◆차례◆

3. 한국 문학의 성격

(1)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어미 말과 새끼 말-----1쪽 (5문제)

*송인-----5쪽 (19문제)

(2)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사미인곡-----13쪽 (32문제)

*태평천하-----25쪽 (32문제)

(3) 한국 문학의 양상과 발전

*정선 아리랑-----44쪽 (5문제)

4. 한국 문학의 흐름

(1) 서정 갈래의 흐름

*제망매가-----49쪽 (21문제)

*청산별곡-----56쪽 (45문제)

*어부사시사-----73쪽 (25문제)

*쉽게 씌어진 시-----84쪽 (44문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101쪽 (32문제)

(2) 서사 갈래의 흐름

*김현감호-----115쪽 (7문제)

*구운몽-----121쪽 (43문제)

*너와 나만의 시간-----146쪽 (32문제)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165쪽 (30문제)

(3) 극 갈래의 흐름

*봉산 탈출-----184쪽 (11문제)

*원고지-----191쪽 (22문제)

(4) 교술 갈래의 흐름

*광상가와와 대화-----206쪽 (9문제)

▶정답-----212쪽

▶정답-----215쪽

(버전: 2020.06.22.) 이전 버전의 오류는 수정됨.

문제를 풀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오류 정정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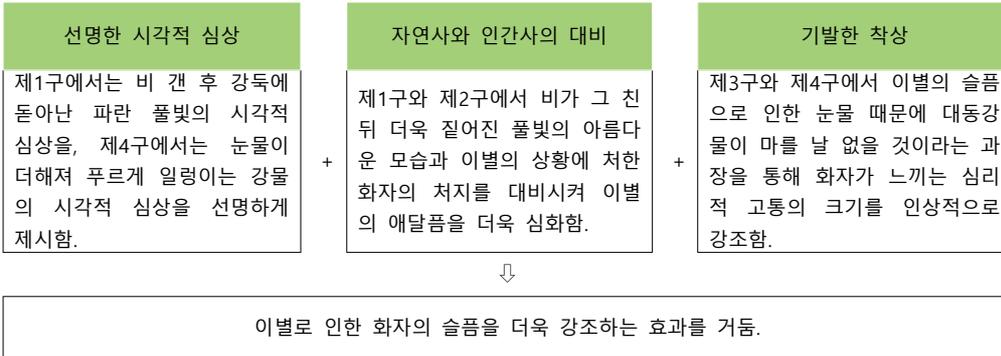
오류 신고 및 문의: pt005pt (카톡 ID)

3-(1) 송인

1. 상황과 정서

화자의 상황	봄날 비 갠 남포에서 임을 떠나보내며 눈물을 흘리고 있음.
화자의 정서	이별로 인한 슬픔에 젖어 있음.

2. 특징과 효과



3. 이 작품과 같은 한문 문학을 한국 문학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까닭

「송인」은 이별의 정한을 주제로 고려 시대에 지어진 한시로, 비록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와 사상을 담고 있어 한국 문학 작품으로 본다. 이처럼 한글 창제 이전에 불가피하게 한자를 사용해 창작된 문학 작품 또는 한글 창제 이후에 창작된 한문 문학들은 과거 중세에 동아시아에서 한자가 보편적인 문자 언어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 문학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비 개인 긴 독에 풀빛이 고운데 雨歇長堤草色多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送君南浦動悲歌
 대동강 물이야 언제나 마르려나 大同江水何時盡
 이별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보태나니. 別淚年年添綠波
 - 정지상, 「송인」

송도고등학교 (인천)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려 시대에 지어진 칠언절구의 한시로 이별의 정한을 표현하고 있다.
- ② 1구와 2구에서는 자연과 인간사의 대비를 통해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③ 2구와 4구 모두 색채어를 써서 선명한 시각적 심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3구와 4구에서는 설의법, 과장법, 도치법을 다양하게 쓰고 있다.
- ⑤ 이별 공간의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하여 향토성을 드러내고 있다.

송도고등학교 (인천)

2. 윗글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 ①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 ② 가시리 가시리이고 나는/ 부리고 가시리이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太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호고/ 부리고 가시리이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太平盛代)//
 - 고려가요, 「가시리」
- ③ 펄펄 나는 저 피꼬리는/ 암수가 서로 노니는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꼬//
 - 유리왕, 「황조가」
- ④ 난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 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 ⑤ 붉은해는 서산(西山) 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山)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김소월, 「초혼」

분일여자고등학교 (인천)

3.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西京)이 서울히 마르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닷곤디 아즐가 닷곤디 쇼성경 고외마른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론 질삼빔 브리시고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괴시란디 아즐가 괴시란디 우러곰 좃니노이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에 다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긴히쑤 아즐가 긴히쑤 그츠리잇가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즘흔히를 아즐가 즘흔히를 외오곰 녀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신(信)잇돈 아즐가 신(信)잇돈 그츠리잇가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너븐디 몰라서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비내여 아즐가 비내여 노흔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네가시 아즐가 네가시 럼난디 몰라서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널비에 아즐가 널비에 연즌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건넌편 고즐여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비타들면 아즐가 비타들면 것고리이다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 작자 미상, 「서경별곡」

- ① <보기>는 윗글과 달리 3음보의 율격과 분절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보기>와 윗글 모두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을 설정하여 향토색을 드러낸다.
- ③ <보기>의 1연은 윗글의 중심 정서와 대응되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보기>의 2연은 화자의 정서나 태도의 지속성을 볼 때 윗글과 유사하다.
- ⑤ <보기>의 3연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임을 원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윗글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와 차이가 있다.

분일여자고등학교 (인천)

4.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시행을 윗글에서 찾고, 내용상의 특징과 표현 효과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보기>

조선 영조 때의 문인 신광수가 「관서악부」에서 “남포에서 임을 보낸 그 옛날 노래 있어, 청년 절창은 정지상이네.”라고 노래했을 만큼, 「송인」은 이별의 정한을 다룬 고려 시대 한시 중 대표작으로 꼽힌다. 이러한 평가는 이 시가 선명한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였고, 자연과 인간사를 효과적으로 대비하였으며, 기발한 착상을 통해 시적 묘미를 살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조건>

1. '자연과 인간사가 대비된 부분은 A (이)며, B (을)를 대비함으로써 C (을)를 강조하고 있다.'의 문장 형식으로 서술할 것.
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시행을 찾아 A부분에 서술할 것.
3. 내용상의 특징을 서술할 때 자연과 인간사의 두 가지 내용을 대비하여 B부분에 서술할 것.
4. 표현 효과를 나타낼 때 정서 표현의 효과성 측면에서 C부분에 서술할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雨歇長堤草色多 비 갠 긴 독에 풀빛이 고운데
 送君南浦動悲歌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大同江水何時盡 대동강 물이야 언제나 마르려나
 別淚年年添綠波 이별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보태나니.
 - 정지상, 「송인」

(나)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
 서 한숨의 미풍(微風)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指針)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
 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대전지족고등학교 (대전)

5.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 ②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 ③ 문장 성분의 위치를 바꾸어 슬픔의 감정을 극대화하고 있다.
- ④ 자문자답의 형식을 빌려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⑤ 과장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심리적 고통의 크기를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전지족고등학교 (대전)

6.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과 표현 방법이 일치하는 것은?

- ①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 그대로 당신이 나무라면 /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 ②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 진달래꽃 /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 가시는 걸음걸음 / 놓인 그 꽃을 /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③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 저 푸른 해원(海原)을 향하여 흐르는 /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꽃대 끝에 /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퍼다. 아아 누구인가 /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 ④ 쫓아오던 햇빛인데 / 지금 교회당 꼭대기 / 십자가에 걸리
었습니다. // 첨탑(尖塔)이 저렇게도 높은데 / 어떻게 올라
갈 수 있을까요. //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 휘파람이
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 괴로웠던 사나이 /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 모가지를 드
리우고 /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 ⑤ 영화(映畵)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 일제히 일어나 애국
가를 경청한다. / 삼천리 화려 강산의 / 을속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 떼들이 / 자기
들끼리 끼룩거리면서 / 자기들끼리 깎깎대면서 / 일렬 이열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 우리도 우리들끼리 / 깎
깎대면서 / 깎깎대면서 /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 한 세상
떼어 메고 /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 하는데 대
한 사람 대만으로 / 길이 보전하세로 / 각자 자기 자리에
앉는다. / 주저앉는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비 개인 긴 독에 풀빛이 고운데	雨歇長堤草色多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送君南浦動悲歌
대동강 물이야 언제나 마르려나	大同江水何時盡
이별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보태나니.	別淚年年添綠波
- 정지상, '송인'	
(나)	
늙은이의 한 가지 통쾌한 일은	老人一快事
붓 가는 대로 시를 마구 쓰는 것	縱筆寫狂詞
압운에 꼭 매일 것 없고	競病不必拘
퇴고를 꼭 오래 할 것도 없다네.	推敲不必遲
흥이 나면 곧바로 뜻을 실어 내고	興到即運意
뜻이 이르면 곧바로 쓰면 그뿐.	意到即寫之
나는 바로 조선 사람인지라	我是朝鮮人
즐겨 조선의 시를 짓노라.	甘作朝鮮詩
당신은 당신의 법을 따르라.	卿當用卿法
시원찮다 따질 자 누구이겠나?	迂哉議者誰
구구한 격이니 법이니 하는 것을	區區格與律
먼 데 사람이 어찌 알 수 있으랴? [하락]	遠人何得知
- 정약용, '송파에서 시를 주고받으며'에서	

광주서석고등학교 (광주)

7. (가)와 (나)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② (가)와 (나)는 운율이 있는 언어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드러낸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시 창작에 관한 화자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원래 한자로 쓰인 작품이지만 한국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서석고등학교 (광주)

8. (가)와 <보기>의 '물'을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예 물을 건너고 말았네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임이여 이를 어이할꼬.
- 작자 미상, '공무도하가'

	(가)	<보기>
㉠	절망적 이미지	극복의 이미지
㉡	임을 떠올리는 장치	화자가 성찰하는 장치
㉢	이별의 정서를 고조시킴	임과의 이별을 의미함
㉣	임과의 재회에 대한 열정	임과의 이별에 대한 회한
㉤	이별의 공간을 의미함	재회에 대한 희망을 의미함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비 개인 긴 독에 풀빛이 고운데 雨歇長堤草色多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送君南浦動悲歌
 ㉠ 대동강 물이야 언제나 마르려나 大同江水何時盡
 이별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보태나니. 別淚年年添綠波
 - 정지상, 「송인(送人)」

(나)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
 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微風)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指針)을 돌려놓
 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
 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
 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헐싸고 둥
 둥합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다)
 ㉣ 정선의 구멍은 무릉도원이 아니냐
 무릉도원은 어디 가고서 산만 충충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명사십리가 아니라면은 해당화가 왜 피며
 모춘 삼월이 아니라면은 두견새는 왜 우나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싸릿골 올동백이 다 떨어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떨어진 동박은 낙엽이나 쌓이지
 잠시 잠깐 임 그리워서 나는 못 살겠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 작자미상, 「정선 아리랑」

군포고등학교 (경기)

9.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 2구에는 선명한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다.
- ② 2, 3구에는 이별의 공간을 구체적 지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3, 4구에서는 설의, 도치, 과장 등 다양한 수사법을 활용하고 있다.
- ④ 1, 3, 4구에는 '물'의 이미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 ⑤ 1, 3구에는 자연사(自然史)를, 2, 4구에는 인간사(人間事)를 제시하고 있다.

군포고등학교 (경기)

10.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화자가 느끼는 심리적 고통의 크기를 인상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② ㉡ : 님의 존재가 화자에게 절대적이었음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 : 불교의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이별에 대한 염려와 재회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 구체적 지명을 제시하여 향토색을 드러내며 경치가 아름답다워 살기 좋은 이상향을 강조하고 있다.
- ⑤ ㉤ : 각 연에 다양한 상황과 정서가 나열되어 있지만, 반복을 통해 형식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있다.

군포고등학교 (경기)

1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에 나타난 한국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국 문학은 전승 방식에 따라 구비 문학(口碑文學)과 기록 문학(記錄文學)으로 나뉜다. 그리고 기록 문학은 다시 표기 방식에 따라 한문 문학과 국문 문학으로 나뉜다.

한문 문학은 한자의 수입 이후 한자로 창작 기록된 문학으로, 한국 문학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한자 사용이 불가피했고, 그 후에도 대략 19세기 이전까지는 한자가 동아시아 문화권의 보편 문어(文語)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주제 의식이나 가치관, 표현 형식 등의 측면에서 한국 문학의 특질은 다양하게 거론되어 왔다. 가령 어떤 이는 한(恨)의 정서를 우리 문학의 특질이라 보지만, 감정의 응어리를 집단으로 발산하고 표출 하는 신명, 현실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폭로하고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이나 풍자 등을 우리 문학의 특질로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 문화에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는 자연 친화 의식, 불의한 현실에 타협하지 않으려는 지조와 절개, 격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멋 등도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양식적 측면에서는 형식적 정제미, 음보를 중심의 운을 감각, 함축과 여운 같은 특질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 ① 전승 방식으로 볼 때, (가)와 (나)는 기록 문학인 반면, (다)는 구비 문학으로 볼 수 있다.
- ② 주제 의식과 가치관에서 볼 때, (가)~(다)는 모두 님과 이별한 애상감을 담고 있다.
- ③ 주제 의식과 가치관에서 볼 때, (가)~(다)는 모두 자연을 제재로 삼아 자연 친화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표현 형식으로 볼 때, (가)~(다)는 모두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표현 형식으로 볼 때, (가)는 압운으로, (나)는 유사한 종결어미의 반복으로, (다)는 4음보의 율격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비 개인 긴 독에 풀빛이 고운데 雨歇長堤草色多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送君南浦動悲歌
 대동강 물이야 언제나 마르려나. 大同江水何時盡
 이별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보태나니. 別淚年年添綠波
 - 정지상, 「송인(送人)」 -

(나)
 늙은이의 한 가지 통쾌한 일은 老人一快事
 붓 가는 대로 시를 마구 쓰는 것 縱筆寫狂詞
 압운에 꼭 매일 것 없고 競病不必拘
 퇴고를 꼭 오래 할 것도 없다네. 推敲不必遲
 흥이 나면 곧바로 뜻을 실어 내고 興到卽運意

뜻이 이르면 곧바로 쓰면 그뿐. 意到卽寫之
 나는 바로 조선 사람인저라 我是朝鮮人
 즐겨 조선의 시를 짓노라. 甘作朝鮮詩
 당신은 당신의 법을 따르라. 卿當用卿法
 시원찮다 따질 자 누구이겠나? 迂哉議者誰
 구구한 격이니 법이니 하는 것을 區區格與律
 먼 데 사람이 어찌 알 수 있으랴? 遠人何得知
 - 정약용, 「송파에서 시를 주고받으며(松坡酬贈)」 -

여의도고등학교 (서울)

12.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표현 방법과 그 효과를 파악해 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조선 영조 때의 문인 신광수가 「관서악부」에서 “남포에서 임을 보낸 그 옛날 노래 있어. 천년 절창은 정지상이네(當日送君南浦曲 千年絕唱鄭知常).”라고 노래했을 만큼, 「송인」은 이별의 정한을 다룬 고려 시대 한시 중 대표작으로 꼽힌다. 이러한 평가는 이 시가 선명한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였고, 자연과 인간사를 효과적으로 대비하였으며, 기발한 착상을 통해 시적 묘미를 살렸기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

- ① 제1구와 제3구에서 생동하는 봄의 정취와 인간사의 이별을 대비하여 슬픔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 ② 제1구의 ‘고운데’에서 시각적 심상을 통해 이별의 정한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 ③ 제2구의 ‘슬픈 노래 부르네’에서 선명한 시각적 심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제시되어 있다.
- ④ 제3구와 제4구에서 과장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심리적 고통을 인상적으로 강조한다.
- ⑤ 제4구에서 ‘이별 눈물’과 ‘푸른 물결’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대비하여 표현 효과를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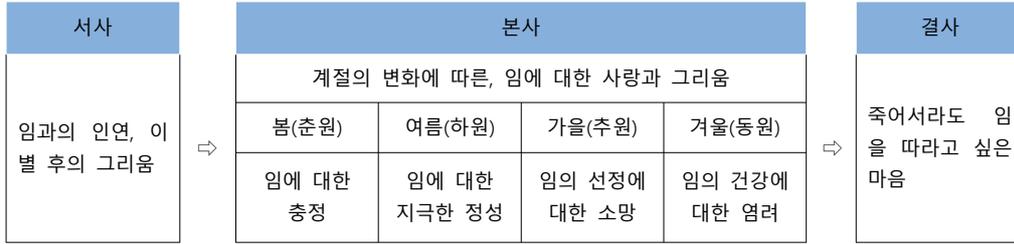
여의도고등학교 (서울)

1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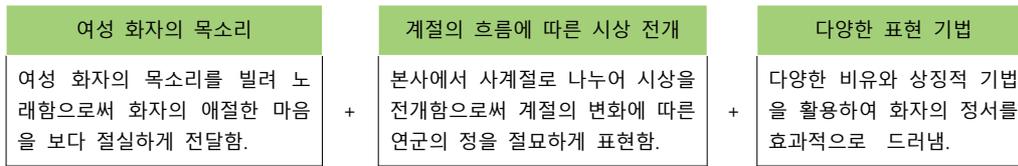
- ① (가)는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을 통해 이별의 정한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가), (나)는 한자로 쓰였지만, 당시 한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한국문학으로 볼 수 있다.
- ③ (가)는 ‘도치법, 과장법, 설의법’과 절묘한 시상의 전환을 통해 이별의 정한을 잘 드러낸다.
- ④ (가)는 감각적 이미지의 선명한 제시를 통해 서경에 서정을 동화시켜 화자의 소망을 보여준다.
- ⑤ (나)의 화자는 ‘흥, 뜻’을 중요시하고 ‘압운, 퇴고, 구구한 격과 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2) 사미인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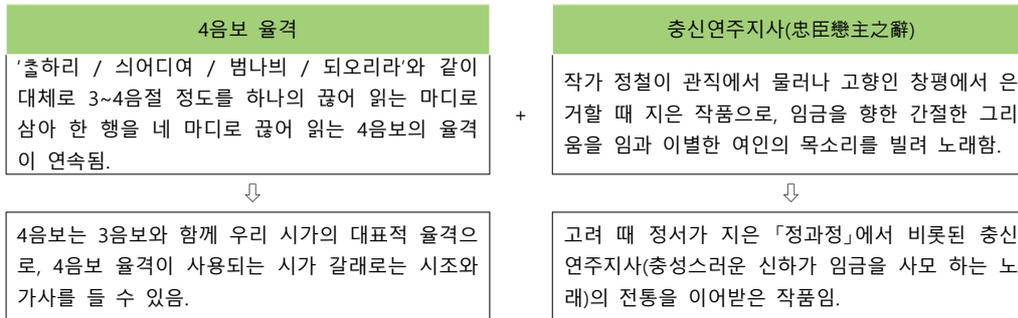
1. 시상 전개



2. 특징과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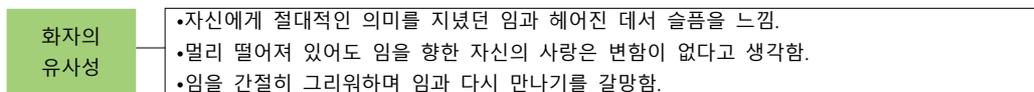


3. 이 작품에 드러난 한국 문학의 전통



4. 이 작품과 「님의 침묵」과의 비교

「사미인곡」은 부재하는 임에 대한 자기희생적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침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하나 점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디 노여 업다
 평생(平生)에 원(願)하오디 혼디 네자 하얏더니
 늙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논고
 엇그제 님을 뵈서 광한던(廣寒殿)의 올났더니
 그 더디 엇디하야 하계(下界)에 내려오니
 올 저기 비슨 머리 헛틀언 디 삼 년(三年)일쇠
 연지분(胭脂粉) 있니마는 놀 위하야 고이 홀고
 마음의 미친 실음 텃텃(疊疊)이 빠져 이셔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인칭(人生)은 유한(有限)혼디 시름도 그지업다
 무심(無心)흔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흐논고야
 염냉(炎涼)이 재를 아라 가는 듯 고태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동풍(東風)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창(窓)밭긔 심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띄어세라
 굿득 냉담(冷淡)혼디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황혼(黃昏)의 돌이 조차 벼마터 빗최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미화(梅花)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꽃 디고 새납 나니 녹음(綠陰)이 싹렸느디
 나위(羅幃) 적막(寂寞)하고 슈막(繡幕)이 뷔여 있다
 부용(芙蓉)을 거더 노코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굿득 시름 한디 날은 엇디 기뻐던고
 원앙금(鴛鴦衾) 버혀 노코 오식선(五色線) 플터 내여
 금자히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 내니
 슈품(手品)은 쿠니와 제도(制度)도 7줄시고
 산호슈(珊瑚樹) 지게 우히 백옥함(白玉函)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 바라보니
 산(山)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천리만리(千里萬里) 길흘 뉘라셔 차자갈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흐르밤 서리 감의 기러기 우러 널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슈정념(水晶簾) 거든마리

[A] 동산(東山)의 돌이 나고 북극(北極)의 별이 뵈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띄여 내여 봉황누(鳳凰樓)의 붓티고
 겨
 누(樓) 우히 거러 두고 팔황(八荒)의 다 비최여
 심산궁곡(深山窮谷) 점낫?티 밍그쇼셔.

<중략>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빅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디 족족 안니다가
 향 므틴 놀애로 님의 오시 올드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츼려 흐노라
 - 정철, 「사미인곡」 -

동탄고등학교 (경기)

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임과 헤어진 지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 ② 화자와 임은 과거에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 ③ 화자는 봄에 임의 옷을 지어 매화를 꺾어 함께 보낸다.
- ④ 화자는 죽어 범나빅가 되어서라도 임을 찾아가고 싶어한다.
- ⑤ 화자는 과거에 광한전에서 살았으나 지금은 하계에서 살고 있다.

동탄고등학교 (경기)

5. <보기>의 ㉠, ㉡를 참고하여 윗글의 [A]의 의미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보기>

이 작품은 정철이 1585년(선조 18년)에 지은 가사이다. 당시 정철은 조정의 당파 싸움에 연루되어 있었는데, 동인 세력이 합세하여 서인 세력을 공격하자, 서인 세력의 대표였던 정철은 자신의 고향인 전남 창평에 내려가 은거 생활을 하며 이 작품을 지었다. 임에 대한 그리움을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임금에 대한 화자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 (1) [A]에 해당하는 계절과 이 계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어(㉠) 2개를 (다)에서 찾아 쓰시오.
- (2) ㉡와 관련지어 [A]의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조건>

- (1)의 답안 작성 시, 시어는 2개까지만 채점함.
- (2)의 답안 작성 시, '심산궁곡', '점낫?티'의 상징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

광영고등학교 (서울)

6. 윗글을 참고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 (1) 윗글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임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직접 드러내기도 하였다. 해당하는 구절을 찾아 쓰시오.
- (2) 윗글의 작가는 남성이지만 여성의 목소리를 빌려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몸 삼기질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싱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하나 점어 잇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디 노여 업다.
 평싱(平生)에 원(願)호요디 혼디 네자 호앗더니.
 늙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논고
 ㉡엇그제 님을 뵈셔 광한던(廣寒殿)의 올났더니
 그 더디 엇디호야 하계(下界)에 노려오니
 올 저기 비슨 머리 헛들언디 삼 년(三年)일쇠
 연지분(胭脂粉) 잇니마는 놀 위호야 고이 홀고
 마음의 미친 실음 텃텃(疊疊)이 빠혀 이셔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인칭(人生)은 유한(有限)혼디 시름도 그지업다
 무심(無心)혼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호논고야
 ㉢염냉(炎涼)이 새를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동풍(東風)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창(窓) 밝기 심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띄여세라
 굿득 냉담(冷淡)혼디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황혼(黃昏)의 돌이 조차 버마터 빗치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미화(梅花) 것거 내여 님 거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꽃 디고 새납 나니 녹음(綠陰)이 싹렸논디
 나위(羅幃) 적막(寂寞)호고 슈막(繡幕)이 뷔여 잇다
 부용(芙蓉)을 거더 노코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굿득 시름 한디 날은 엇디 기뻐던고
 원앙금(鴛鴦錦) 버혀 노코 오식선(五色線) 플터 내여
 금자히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 내니
 슈품(手品)은 크니와 제도(制度)도 7줄시고
 산호수(珊瑚樹) 지게 우히 백옥함(白玉函)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거신 디 바라보니,
 산(山)인가 ㉥구름인가 머호도 머흘시고.
 천리(千里) 만리(萬里) 길히 뉘라셔 차자갈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흐르밤 서리 감의 기러기 우러 넬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슈정념(水晶簾) 거든 마리
 동산(東山)의 돌이 나고, 북극(北極)의 별이 뵈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미워 내여 봉황누(鳳凰樓)의 붓티고져
 누(樓) 우히 거러 두고 팔황(八荒)의 다 비취여
 심산궁곡(深山窮谷) 점났 7티 밍그쇼셔
 건곤(乾坤)이 폐식(閉塞)호야 백설(白雪)이 혼 비친 제
 사름은 크니와 놀새도 굿쳐 잇다
 ㉧쇼상남반(瀟湘南畔)도 치오미 이려커든
 옥루(玉樓) 고쳐(高處)야 더욱 날너 므스호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여 님 거신 디 쏘이고져
 모침(茅簷) 비친 히를 옥누(玉樓)의 올리고져
 ㉩홍상(紅裳)을 니의치고 취슈(翠袖)를 반(半)만 거더
 일모슈죽(日暮脩竹)의 험가림도 하도 할샤
 다룬 히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청등(靑燈) 거룬 것터 던공후(鈿箏篋) 노하두고

꿈이나 님을 보려 툇 밧고 비겨시니
 양금(鸞衾)도 초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썰고
 ㉪호르도 열두 새 혼 돌도 션흔 날
 저근덧 싱각 마라, 이 시름 닛자 하니
 마음의 미쳐 이셔 골슈(骨髓)의 쎄터시니
 편작(扁鵲)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엇디호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 정철, 「사미인곡」

송도고등학교 (인천)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를 둘러싼 사물에 자신의 정서를 투영하고 있다.
- ② 계절의 변화에 맞추어 정서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시적 화자는 임과의 행복했던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다.
- ④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함으로써 비극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 ⑤ 시적 화자는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송도고등학교 (인천)

11. ㉠ ~ ㉨의 구절에 대한 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임과의 인연을 강조한 것.
- ② ㉡ : 세월의 무심함을 표현한 것.
- ③ ㉢ : 문맥상 '廣寒宮'과 같은 곳.
- ④ ㉣ :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드러내고 있음.
- ⑤ ㉤ : 덧없이 흐르는 세월의 무상함을 강조하고 있음.

송도고등학교 (인천)

12. 윗글에서 <보기>의 밑줄 친 시어와 함축적 의미가 같은 시어는?

<보기>

밧버들 같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 손디
 자시는 창(窓) 밧기 심거 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 납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 홍량 -

- ① '연지분' ② '님의 옷'
- ③ '구름' ④ '슈정념'
- ⑤ '편작'

송도고등학교 (인천)

1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남성 작가가 자신의 분신으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방식은 우리 시가의 한 전통이다. 궁궐을 떠난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사미인곡>도 이 전통을 잇고 있다.

- ① '옷'을 지어 '백옥함'에 담아 임에게 보내려 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신하의 정성과 그리움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 ② 지상의 화자가 천상의 '달'과 '별'을 매개로 임을 떠올린 것은 군신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청광'을 보내고자 염원하는 이유에서 시적 화자와 청자가 실제로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다.
- ④ 추운 날씨에 '모침'에 비친 해는 임금의 자애로운 은혜가 신하가 머물고 있는 곳까지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 ⑤ 긴긴 겨울밤을 배경으로 차가운 '양금'을 통해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 것은 군신 관계를 남녀 관계로 치환한 결과이다.

송도고등학교 (인천)

14. <보기>는 윗글의 전개 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과 ㉡에 들어갈 알맞은 시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윗글은 계절에 따라 구성되고 있다. 봄을 나타내는 시어로는 (㉠)과/와 매화가 있으며 여름을 나타내는 시어로는 (㉡)이/가 있다.

대전지족고등학교 (대전)

1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지극한 정성, 염려 등이 드러난다.
- ② 죽어서도 임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밝히며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
- ③ 이별의 구체적인 원인을 제시하며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드러내기도 한다.
- ④ 임의 반응과 상관없이 임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드러난다.
- ⑤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간절히 바라지만, 임을 직접 찾아 나서지 못하는 소극적 태도에 머물고 있다.

대전지족고등학교 (대전)

16. 다음 밑줄 친 시어 중 ㉠의 상징적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구름 비치 조타 하나 검기를 조로 한다
 바람 소리 몫다 하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칠 뉘 업기는 물론인가 호노라
- ② 구름이 무심(無心)탄 말이 아마도 허량(虛浪)하다
 중천(中天)에 써 이서 임의(任意) 둔니며서
 구뎨야 광명(光明)한 날 빛출 짜라가며 덤느니
- ③ 백설(白雪)이 조조진 골에 구름이 머호레라
 반가운 매화(梅花)는 어니 곳인 뛰엿는고
 석양(夕陽)의 호을노 셔서 갈 곳 몰나 호노라
- ④ 잡거니 밀거니 놓픈 뉘히 올라가니
 구름은 쵸니와 안개는 무스 일고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었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 니(千里)를 브라보라
- ⑤ 일출(日出)을 보리라 밤등만 니러하니
 상운(祥雲)이 집피는 동 녹룡(六龍)이 바되는 동
 바다히 썩날 제는 만국(萬國)이 일위더니
 텃등(天中)의 티쓰니 호발(毫髮)을 헤리로다
 아마도 뉘구름 근처의 머물세라

대전지족고등학교 (대전)

1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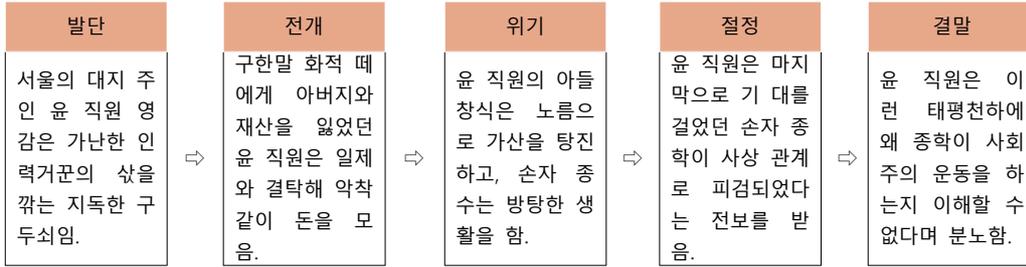
<보기>

우리의 옛 시가 중에는 이른바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 즉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사모하는 노래로 분류되는 작품들이 있다. 고려 때 정서가 지은 「정과정곡」에서 비롯된 이러한 시가들은 대체로 임에게 버림받아 자나 깨나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노래라는 형식을 띠었는데, 「사미인곡」도 그 중 하나이다. 「사미인곡」은 정철이 과열된 봉당 정치로 인해 중앙 정계에서 물러나 전라도 창평에 머물던 상황에 지은 것으로, 후대에 김춘택의 「별사미인곡」을 비롯한 여러 작품이 이 노래를 모방하기도 하였다.

- ① 작가가 중앙 정계에서 물러났음을 ㉠을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② ㉡에서 임에게 버림받아 좌절하고 슬퍼하는 여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에서 임금의 선정을 바라는 충성스러운 신하로서의 면모가 잘 드러나는군.
- ④ ㉣을 통해 이 작품이 작가가 전라도 창평에 머물던 상황에서 창작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을 통해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3-(2) 태평천하

1. 서사 구조와 주제



일제 강점기 한 지주 집안의 세대 간 갈등과 몰락 과정을 통해 당대 사회의 모순을 보여 줌.

2. ‘ (亡秦者)는 호야(胡也)나라라는 소재목의 기능
 ’ (亡秦者)는 호야(胡也)나라는 제15장의 제목으로 진나라가 진시황의 아들 ‘호해’로 인해 망한 것처럼 윤 직원의 집안이 그가 아끼는 손자 종학 때문에 망할 것임을 암시한다.

3. 주요 등장인물

윤 직원 영감	지주이자 고리대금업자로서 일제에 의해 국권을 빼앗긴 상황을 ‘태평천하’라고 여길 만큼 역사 의식, 윤리 의식이 없는 속물적 인물임.
윤창식	윤 직원의 아들. 개화기에 교육을 받은 세대이지만 사회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향락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인물임.
윤종수	윤 직원의 큰손자. 무능력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는 인물임.
윤종학	윤 직원의 작은손자. 윤 직원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았으나, 그 기대와는 달리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인물임.

4. 윤 직원의 현실 인식에 대한 작가의 태도

윤 직원은 빈부 차이를 없애자는 사회주의자를 부자의 재산을 도적질하는 불한당패와 같다고 생각하고, 일본이 자신의 재산을 지켜 주는 일제 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인식함.

작가는 윤 직원을 통해 부도덕한 윤리 의식을 비판하고, 근대정신을 망각한 지주 계급과 왜곡된 식민지 현실을 풍자하고 있음.

5.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

반어적인 의도의 표현	겉으로는 치켜세우지만 실제로는 격하시키는 반어적 표현으로 인물의 추악함을 드러냄.
편집자적 논평	인물과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판단을 제시해 인물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함.
방언과 비속어의 사용	현장감과 사실감을 살리고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함.

6. 판소리적 특성

「태평천하」의
서술자

- ‘~입니다’ 식의 경어체 문장이나 ‘~겠지요’와 같은 경박한 어투를 빌려서, 사건을 진술하는 자로서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사건을 요약하고 평가하면서 독자에게 일러바치는 형식을 취하며 작중 인물을 마음껏 조롱함.
- 판소리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서술자는 판소리의 창자와 같은 역할을 함.

7. 이 작품과 「우리 동네 황 씨」에 드러난 풍자와 해학의 특징

- 두 작품 모두 부정적인 인물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인물의 비도덕성과 용렬한 언행을 빈정거리고 희화화함으로써 강한 풍자성을 보여 줌.
- 두 작품 모두 아이러니한 상황을 진한 방언과 비속어 등을 통해 전달하면서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성을 보임.

⇒

풍자와 해학은 한국 문학의 전통적 특징 중 일부로, 이와 같은 작품들에 의해 현대 문학에서도 면면히 계승되어 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㉑15. 망진자(亡秦者)는 호야(胡也)니라

일찍이 윤 직원 영감은 그의 소신적 윤 두꺼비 시절에, 자기 부친 말 대가리 윤용규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광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A]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고.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지요. 그런데…….

<중략>

“종학,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피검! ……이러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 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으응?”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윤 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같이 멍했지만, ㉑이변에는 앉아 있는 땅이 지함을 해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학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윤 직원 영감은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의 드세던 부랑당 패가 백 길 천 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진(秦)나라를 망할 자 호(胡)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B]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고, 그의 자식 호해(胡亥)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까.

“사회주의라니? 으응? 으응?”

윤 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咆哮)를 합니다.

“……으응? 그놈이 사회주의를 허다니! 으응?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여?”

“허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에 나왔을 때버튼 그런 기미가 좀 뵈긴 했어요!”

“그러머년 참말이구나! 그러머년 참말이여, 으응!…….”

윤 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 흐릅니다.

“……그런 처 죽일 놈이, 깎아 죽여두 아깝잖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허라닝개루, 생판 사회주의 허다가 뎡다 경찰서에 잡혀? 으응……? 오사육시를 헐 놈이, 그놈이 그게 어디 당헌 것이라구 지가 사회주의를 히여? 부자 놈의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부랑당 패에 들어?…….”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 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오죽이나…….”

윤 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건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감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느냐? 부랑당 같은 수령(守令)들이 있느냐……? 재산이 있어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末世)년 다 지내가고오…… 자 부아라, 거러거리 순사요, ㉒골골마다 공명한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남은 수십만 명 동병(動兵)을 히여서, 우리 조선놈 보호히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으응……? 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허는 것이여, 태평천하……! 그러디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 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땡땡거리구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 놀 부랑당 패에 참석을 헌담 말이여, 으응?”

땅 방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든 요란스럽고 괘괄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여 선 가권들은 방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거나 않는가 하는 의구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착착 깎아 죽일 놈……! 그놈을 내가 핀지히여서, 백년 지역을 살리라구 헐걸! 백년 지역 살리라구 헐 테여…… 오나, ㉓그놈을 삼천 석 거리는 직분(分財)하여 줄라구 히였더니, 오나, 그놈 삼천 석 거리를 툭툭 팔아서, 경찰서오다가 사회주의허는 놈 잡아 가두는 경찰서오다가 주어 버릴걸! 으응, 죽일 놈!”

마지막의 으응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깝습니다.

“……㉔이 태평천하에! 이 태평천하에…….”

쿵쿵 발을 구르면서 마루로 나가고, 꿇어앉았던 윤주사와 종수도 따라 일어섭니다.

“……그놈이, 만석꾼의 집 자식이, 세상 망쳐 놀 사회주의 부랑당 패에, 참석을 히여, 으응, 죽일 놈! 죽일 놈!”

연해 부르짖는 죽일 놈 소리가 차차로 사랑개로 멀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포효가 뒤에 처져 있는 가권들의 귀에는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어, 가뜩이나 어둔 얼굴들을 면면상고, 말할 바를 잊고, 몸 둘 곳을 돌려 보게 합니다. ㉕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들처럼…….

- 채만식, 「태평천하」 -

화원고등학교 (대구)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작품 밖 서술자를 통해 등장 인물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 ③ 시대적 상황을 제시하여 사회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인물의 과장된 행동을 통해 비극적 분위기의 반전을 피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풍자적 태도를 통해 대상의 부정적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화원고등학교 (대구)

2. [A] 부분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을 (예시)와 같이 정리하고, 그 효과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서술상 특징	(예시) 비속어, 반어적 표현을 사용함 (1.)
효과	(예시) 인물을 희화화하고 격하시키며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2.)

화원고등학교 (대구)

3. ㉠의 의미를 [B]와 관련지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윤 직원 영감이 자신의 앞날을 짐작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② 윤 직원 영감의 집안을 망하게 한 것이 그의 자손임을 함축하고 있다.
- ③ 진시황을 운용규에, 황제의 아들 호해를 윤두섭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윤 직원 영감의 기대대로 결국 가문의 영화가 이어질 것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윤 직원 영감이 겪는 불행이 자손들에게 행운이 될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화원고등학교 (대구)

4.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 : 인물이 믿고 사랑하는 손자의 신상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태도에서 나온 표현이다.
- ② ㉢ : 사회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인물의 객관적 현실 인식을 드러낸 표현이다.
- ③ ㉣ : 손자에 대한 유산 상속을 포기하며 아쉬움을 드러낸 표현이다.
- ④ ㉤ : 인물의 비뚤어진 역사인식을 고려하여 반어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표현이다.
- ⑤ ㉤ : 집안의 불행에 저항하고자 하는 식구들의 마음을 드러낸 표현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서울의 대지주인 윤 직원 영감은 인력거의 샷도 깔으려 하고,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 않는 구두쇠이다. 그런 그에게도 구한말 화적들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아픈 기억이 있다. 그래서 윤 직원 영감은 일본인들이 불한당을 막아 주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여, 진심으로 그들에게 고마워하며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 데 아낌없이 기부한다. 그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반을 사고 족보에 도금을 하는 한편, 손자 윤종수와 윤종학을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만들어 가문을 빛내고자 한다. 그러나 아들 윤창식은 노름을 하며 가산을 탕진하고, 손자 윤종수 또한 방탕한 생활을 한다. 며느리나 손자며느리도 고분고분하지 않고 딸마저 소박맞고 와서 같이 살고 있다. 윤 직원 영감은 일본에서 유학 중인 손자 윤종학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다.

15. 망진자(亡秦者)는 호야(胡也)니라

일찍이 ㉠윤 직원 영감은 그의 소싯적 윤 두꺼비 시절에 자기 부친 말대가리 윤용규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광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고요.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해서 윤 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고요. 그런데…….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 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반방 고

씨만 빼놓고, 서울 아씨, 태식이, 뒤채의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웅위 아래 윤 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 앉았습니다. 방금 점심 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너 경손 애비, 부디 정신 채리라……”

윤 직원 영감이 종수더러 곰곰이 혼계를 하던 것입니다. 안 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손 애비지요.

“…… 정신을 채리야 할 것이 니가 암만하여두 네 아우 종학이만 못하여! 종학이는 그놈이 재주두 있고 착실하여서, 너 치름 허랑허지도 않고 그럴뿐더러 내년 내후년이머년 대학교를 졸업허잖나? 내후년이지?”

“네.”

“그렇지? 응,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허구 나와서, 삼 년이나 다직 사 년만 짜들어 나머지 그놈은 지가 목적인, 요새 그 목적이란 소리 잘 쓰더구나, 응? 목적…… 목적인 경부가 되야 각구서, 경찰서장이 된담 말이다! 응? 알겠어.”

“네.”

“그러닝개루 너두 정신을 바짝 채리 각구서, 어서어서 군수가 되야야 않겠나?…… 아, 동생 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디, 형 놈은 게우 군 서기를 덩기구 있담! 남부끄러서 어쩔 티여? 응?…… 아 글씨, 군수 되구 경찰서장 되구허머년, 느덜 좋구 느덜 호강이지 머 그 호강 날 주냐? 내가 이렇기 아등 아등 잔소리를 허년 것두 다 느덜 위하여서 그러지, 나는 파리 족통만치두 상관웁어! 알아듣냐?”

“네-.”

“그놈 종학이는 참말루 쓰겼어! 그놈이 어려서버텀두 워너니 나를 차별하게 따르구, 재주두 있구 착실허구, 커서두 내 말을 잘 듣구…… 내가 그놈 하나 년 꼭 믿는다, 꼭 믿어. 작년 울루 들어서 그놈이 돈을 어찌 좀 히피 쓰기는 허녕가 부더라마는, 그것두 허기사 네게다 대머는 안 쓰는 심이지. 사내자식이 너처럼 허랑허지만 말구서, 제 주대만 실행 양이면 돈을 좀 써두 괜찮은 법이여……. 그러서 지난달에도 오백 원 꼭 쓸 디가 있다고 편지하였길래 두말 않고 보내 주었다!”

마침 이때, 마당에서 험험, 점잖은 발은 기침 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윤 주사가 조금 아까야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억지로 큰덕 행보를 하던 것입니다.

윤 주사는 토방으로 내려서는 아들 종수더러, 언제 왔느냐고 심상히 알은체를 하면서, 역시 토방으로 내려서는 두 며느리의 삼가로운 무언의 인사와, 마루까지만 나선 이복 누이동생 서울 아씨의 입인사를 받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서는 부친 윤 직원 영감한테 절을 한자리 꾸부리고서, 아들 종수한테 한자리 절과, 이복동생 태식이한테 경례를 받은 후, 비로소 한 옆으로 꿇어앉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겼구나?”

윤 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고 꼬집는 소립니다.

“……멋하러 오냐? 돈 달러러 오지?”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지체를 바꾸어 윤 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 직원 영감을 속 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꼬옥 맞겠습니다.

“동경서? 전보?”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구요!”

“으응?”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꿇 짓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 선 윤 식구가 제가끔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구요.

윤 직원 영감은 마치 목직한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쪼글트리고 앉습니다.

“거, 웬 소리냐? 으응? 으응?…… 거 웬 소리여? 으응? 으응?”

“그놈 동무가 친 전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윤 주사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의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한테 올립니다. 윤 직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받아 쓰옥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가 몰라보고, 윤 주사네 서사 민 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

“종학, 사 - 상 관계 - 로, 경시청에 피검!……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 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으응?”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윤 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 있는 땅이 지함을 해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학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윤 직원 영감은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의 드세던 부랑당 패가 백 길 천 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A] 진(秦)나라를 망할 자 호(胡)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해(胡亥)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까.

“사회주의라니? 으응? 으응?…….”

윤 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咆哮)를 합니다.

“……으응? 그놈이 사회주의를 허다니! 으응?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여?”

“허긴 그놈이 작년 여름 방학에 나왔을 때버튼 그런 기미가 좀 뵈긴 했어요!”

“그러머년 참말이구나! 그러머년 참말이여, 으응!”

윤 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 오릅니다.

“……그런 처 죽일 놈이, 깎아 죽여두 아깝잖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허라닝개루, 생판 사회주의 허다가 땀다 경찰서에 잤혀? 으응?…… 오사육시를 헐 놈이, 그놈이 그게 어디 당헌 것이라구 지가 사회주의를 히여? 부자 놈의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부랑당 패에 들어?……”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 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오죽이나…….”

윤 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건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향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느냐? 부랑당 같은 수령(守令)들이 있느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년 다 지내가고오……. 자 부아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남은 수십만 명 동병(動兵)을 히여서, 우리 조선 놈 보호히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으응?…… 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허는 것이여,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 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땡땡거리구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 놀 부랑당 패에 참섭을 헌담 말이여, 으응?”

땅 방바닥을 치면서 벌벌 일어섭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든 요란스럽고 괘괄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가권들은 방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거나 앓는가 하는 의구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 착착 깎아 죽일 놈!…… 그놈을 내가 편지히여서, 백 년 지녔 살리라고 헐 티여……. 오냐, 그놈을 삼천 석거리는 직분히여 즐려구 히였더니, 오냐, 그놈 삼천 석거리를 툯톡 팔아서, 경찰서오다가 사회주의 허는 놈 잡아 가두는 경찰서오다가 주어 버릴걸! 으응, 죽일 놈!”

마지막의 으응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 에 가깝습니다.

“……이 태평천하에! 이 태평천하에…….”

쿵쿵 발을 구르면서 마루로 나가고, 꿇어앉았던 윤 주사와 종수도 따라 일어섭니다.

“……그놈이, 만석꾼의 집 자식이, 세상 망쳐 놀 사회주의 부랑당 패에, 참섭을 히여, 으응, 죽일 놈! 죽일 놈!”

연해 부르짖는 죽일 놈 소리가 차차로 사랑개로 멀리 사라 집니다.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포효가 뒤에 처져 있는 가권 들의 귀에는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어, 가뜩이나 어둔 얼굴들을 아무 말도 없이 서로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 할 바를 잊고, 몸 돌 곳을 돌려보게 합니다. ㉠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들처럼…….

- 채만식, 「태평천하(太平天下)」

대륜고등학교 (대구)

5. ㉠~㉢에 나타난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작중 인물들의 천박한 별명들로 인물에 대한 풍자의 효과를 얻고 있다.
- ② ㉡ :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 태도가 경어체로 조롱하듯 드러났다는 점에서 판소리적 문체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 ③ ㉢ : 인물의 언행을 반어적으로 평가하면서 풍자의 효과를 얻고 있다.
- ④ ㉣ : 비속어와 사투리를 사용하며 흥분하는 인물의 태도를 통해 대상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 ⑤ ㉤ : 가족들의 모습을 장수의 죽음을 대하는 군졸들의 참담한 모습에 비유하여 ‘윤 직원’의 몰락을 인상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대륜고등학교 (대구)

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염상섭의 「삼대」 전체 줄거리

조씨 가문의 가장인 ‘조의관’은 개인의 이익 및 집안의 영달과 위신을 높이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인물이다. 또한 가문의 위신을 내세우기 위해 남의 족보에 끼어들기도 하고 큰 돈을 들여 족보를 만들기도 한다. 아들 ‘상훈’은 걸은 기독교

교회의 장로지만 뒤로는 방탕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아버지 '조의관'의 가문 치장이나 족보, 사업에 반대하며 '조의관'의 재산을 눈독 들인다. 하지만 '조의관'은 '상훈'의 타락한 생활을 들먹이고 아들 '상훈'보다 '덕기'를 더욱 믿어 내심 재산을 '덕기'에게 물려주려 한다. 한편 손자 '덕기'는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탐바구니에서 많은 정신적 갈등을 경험한다. 사회주의자인 친구 '병화'로부터 부르주아라는 편지를 곧잘 받기도 하는 사회주의의 심정적 동조자인 그는 '병화'의 소개로 가난한 하숙집 딸 '필순'을 알게 되고 그녀에게 사랑을 느낀다. 조부의 석연치 않은 죽음 이후 '덕기'의 집안은 점점 몰락해 간다.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덕기는 경찰에 잡혔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후 자기에게 맡겨진 의무와 책임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고민한다.

- ① 윗글의 '윤종수'와 <보기>의 '조상훈'은 타락한 생활을 하며 아버지에게 편지를 받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과도기적 인물임을 알 수 있군.
- ② 윗글이 '윤 직원'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적식이 결여된 인물을 풍자하고 있다면 <보기>는 '조덕기'에 초점을 맞추어 당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보게 하는군.
- ③ 윗글의 '윤종학'과 <보기>의 '조덕기'가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통해 이 당시 새로운 세대에게 사회주의 운동이 의미가 있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윗글의 '윤 직원'과 <보기>의 '조의관'은 구시대적 인습에 사로잡힌 가부장적이며 이기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군.
- ⑤ 윗글이나 <보기> 모두 시대적 상황을 삼대로 형성된 가족의 갈등과 운명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군.

대륜고등학교 (대구)

7. 윗글의 [A]와 <보기>를 읽고 <조건>에 따라 답을 서술하시오.

<보기>

진시황 때 도사였던 노승이 바다에 갔다가 괴이한 지도를 발견하여 왕에게 바쳤는데, 그것에는 "망진자(亡秦者)는 호야(胡也)니라."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다. 진시황은 이를 두려워하여 북쪽에 만리장성을 쌓아 오랑개의 침입을 막으려고 했다. 그런데 진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오랑개가 아니라 그의 아들인 '호해(胡亥)'였다.

<조건>

- (1) [A]의 '진시황'이 의미하는 인물을 '~(이)다'의 형식으로 서술하시오.
- (2) [A]의 '호해'가 의미하는 인물을 '~(이)다'의 형식으로 서술하시오.
- (3) <보기>의 만리장성을 쌓는 행위와 연결되는 작품 속 인물의 행위를 '윤종수'와 '윤종학'과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무학여자고등학교 (서울)

8.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어체를 사용해서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 ②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서술자의 생각이 직접 나타난 부분이 있다.
- ③ 15장 제목은 윤 직원 집안의 몰락의 원인이 누구인지를 암시한다.
- ④ 한 가족이 여러 대를 거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가족사 소설이다.
- ⑤ 부정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독자들이 주인공에게 감정을 이입하면서 작품에 몰입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무학여자고등학교 (서울)

9. 다음 중 ㉠과 유사한 수사법이 사용된 것은?

- ①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 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

- 황동규, 「즐거은 편지」

- ② 새는 울어 / 뜻을 만들지 않고, /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 포수는 한 덩이 낚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 매양 쏘는 것은 /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박남수, 「새」

- ③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를 놓고 /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 ④ 부엌에서는 / 언제나 슬 괴는 냄새가 나요. / 한 여자의 / 젊음이 삭아 가는 냄새 / 한 여자의 설움이 / 찌개를 끓이고 / 한 여자의 애모가 / 간을 맞추는 냄새

- 문정희, 「작은 부엌의 노래」

- ⑤ 밤의 식료품 가게 / 케케묵은 먼지 속에 /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 북어들. / 북어들의 일 개 분대가 /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 최승호, 「북어」

무학여자고등학교 (서울)

10. ㉠에 들어갈 적절한 관용적인 표현을 쓰시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서울의 대지주인 윤 직원 영감은 인력거의 샅도 깎으려 하고,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 않는 구두쇠이다. 그런 그에게도 구한말 화적들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아픈 기억이 있다. 그래서 윤 직원 영감은 일본인들이 불한당을 막아 주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여, 진심으로 그들에게 고마워하며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 데 아낌없이 기부한다. 그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반을 사고 족보에 도금을 하는 한편, 손자 윤종수와 윤종학을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만들어 가문을 빛내고자 한다. 그러나 아들 윤창식은 노름을 하며 가산을 탕진하고, 손자 윤종수 또한 방탕한 생활을 한다. 며느리나 손자며느리도 고분고분하지가 않고 딸마저 소박맞고 와서 같이 살고 있다. 윤 직원 영감은 일본에서 유학 중인 손자 윤종학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다.

(나) 일찍이 윤 직원 영감은 그의 소싯적 윤 두꺼비 시절에 자기 부친 말대가리 윤용규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나라고 화광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고.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해서 윤 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고. 그런데…….

(다) “…… 멋허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지체를 바꾸어 윤 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 직원 영감을 속 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돌려놓았으면 꼬옥 맞겠습니다.
 “동경서? 전보?”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구요!”
 “으응?”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공 찡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 했습니다. 모여 선 온 식구가 제각기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구요.
 (라)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 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끊자 방 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 오죽이나…….”
 윤 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건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느냐야? 부랑당 같은 수령(守令)들이 있느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末世)년 다 지내가고오……. 자 부아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헌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 남은 수십만 명 동병(動兵)을 히여서, 우리 조선 농 보호하여 주니, 오죽이나 고

마운 세상이어?…… 으응?…… 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허는 것이여,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 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평평거리구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 놀 부랑당 패에 참섭을 헌담 말이어, 으응?”
 땅 방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 채만식, 「태평천하」

문현여자고등학교 (부산)

11. 윗글을 영화로 제작하고자 할 때, 감독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오열하는 윤 직원 영감의 젊은 시절 모습을 회상 장면으로 삽입하는 게 좋겠어.
- ② 전보를 건네받은 후, 윤 직원 영감의 놀란 눈과 화가 나서 떨리는 주먹을 클로즈업하여 보여주는 게 좋겠어.
- ③ 배경은 윤 직원 영감의 경제적 지위가 잘 드러나도록 서울 한복판의 큰 대문을 가진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설정해야겠어.
- ④ 윤 직원 영감 역할을 맡은 배우에게는 경망스럽게 말하도록, 윤창식 역할을 맡은 배우에게는 점잖은 체 연기하도록 요구해야겠어.
- ⑤ 한 방에 모여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작스런 소식에 놀라 혼비백산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과장되게 연기하도록 요구해야겠어.

문현여자고등학교 (부산)

12. (나)와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서는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서, 인물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 ② (라)에서는 요약적 진술을 활용하여, 식민지 사회에 대한 기성 세대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라)에서는 주인공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며,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에서는 주인공의 세상에 대한 불만이, (라)에서는 주인공의 특정 인물에 대한 불만이 드러나고 있다.
- ⑤ (나)와 (라)에서는 비속어, 반어적 표현 등을 사용하여, 대상을 희화화하고 격하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문현여자고등학교 (부산)

13. (1) ‘윤 직원 영감’이 인식하는 현실의 모습을 윗글에서만 단어로 찾아 쓰고, (2) 작품의 창작 시기를 밝히고, (1)을 통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 의식이 무엇인지 서술하십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서울의 대주인 윤 직원 영감은 인력거의 삿도 깎으려 하고,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 않는 구두쇠이다. 그런 그에게도 구한말 화적들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아픈 기억이 있다. 그래서 윤 직원 영감은 일본인들이 불한당을 막아 주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여, 진심으로 그들에게 고마워하며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 데 아낌없이 기부한다. 그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반을 사고 족보에 도금을 하는 한편, 손자 윤종수와 윤종학을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만들어 가문을 빛내고자 한다. 그러나 아들 윤창식은 노름을 하며 가산을 탕진하고, 손자 윤종수도 한 방향한 생활을 한다. 며느리나 손자며느리도 고분고분하지 않고 딸마저 소박맞고 와서 같이 살고 있다. 윤 직원 영감은 일본에서 유학 중인 손자 윤종학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다.

<중략>

“그러닝개루 너두 정신을 바짝 채리 각구서, 어서어서 군수가 되야야 않겠냐?…… 아, 동생 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디, 형 놈은 게우 군 서기를 땡기구 있담! 남부끄러서 어쩔 티여? 응?…… 아 글씨, 군수 되구 경찰서장 되구허머닌, 느덜 좋구 느덜 호강이지 머 그 호강 날 주냐? 내가 이렇기 아등 아등 잔소리를 허던 것두 다 느덜 위히여서 그러지, 나는 파리 족통만치두 상관없어! 알아듣냐?”

“네-.”

“그놈 종학이는 참말루 쓰겼어! 그놈이 어려서버텀두 워너니 나를 자별허게 따르구, 재주두 있구 착실허구, 커서두 내 말을 잘 듣구…… 내가 그놈 하나 년 꼭 믿는다, 꼭 믿어. 작년 울루 들어서 그놈이 돈을 어찌 좀 히피 쓰기는 허녕가 부더라마는, 그것두 허기사 네게다 대머는 안 쓰는 심이지. 사내자식이 너처럼 허랑허지만 말구서, 제 좃대만 실험 양이면 돈을 좀 써두 괜찬언법이여……. 그리서 지난달에도 오백원 꼭 쓸 디가 있다가 편지허였길래, 두말 않고 보내 주었다!”

마침 이때, 마당에서 험험, 점잖은 발은기침 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윤 주사가 조금 아까야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서 윤 전보 때문에 억지로 억지로 큰댁 행보를 하던 것입니다.

윤 주사는 토방으로 내려서는 아들 종수더러, 언제 왔냐고 심상히 알은체를 하면서, 역시 토방으로 내려서는 두 며느리의 삼가로운 무언의 인사와, 마루까지만 나선 이복 누이동생 서울 아씨의 입인사를 받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서는 부친 윤 직원 영감한테 절을 한자리 꾸부리고서, 아들 종수한테 한 자리 절과, 이복동생 태식이한테 경례를 받은 후, 비로소 한 옆으로 꿇어앉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겼구나?”

윤 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고 꼬집는 소립니다.

“……뻗허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지체를 바꾸어 윤 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 직

원 영감을 속 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꼬옥 맞겠습니다.

“동경서? 전보?”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구요!”

“으응?”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공 찡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 선 은 식구가 제가끔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구요.

윤 직원 영감은 마치 목직한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조글트리고 앉습니다.

“거, 웬 소리냐? 으응? 으응?…… 거 웬 소리여? 으응? 으응?”

“그놈 동무가 친 전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윤 주사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의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한테 올립니다. 윤 직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받아 쓰옥 들 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본이니까 몰라보고, 윤 주사네 서사 민 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

“종학, 사 - 상 관계 - 로, 경시청에 피검!……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 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으응?”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윤 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 있는 땅이 지함을 해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학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윤 직원 영감은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의 드세던 부랑당 패가 백 길 천 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진(秦)나라를 망할 자 호(胡)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해(胡亥)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까.

“사회주의라니? 으응? 으응?…….”

윤 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咆哮)를 합니다.

“……으응? 그놈이 사회주의를 허다니! 으응? 그게, 참말이

나? 참말이여?”

“허긴 그놈이 작년 여름 방학에 나왔을 때버튼 그런 기미가 좀 뵈긴 했어요!”

“그러머넌 참말이구나! 그러머넌 참말이여, 으응!……”

윤 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 오른다.

“……그런 처 죽일 놈이, 깎아 죽여두 아깝잖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허라닝개루, 생판 사회주의 허다가 땀다 경찰서에 째혀? 으응?…… 오사육시를 헐 놈이, 그놈이 그게 어디 당헌 것이라구 지가 사회주의를 히여? 부자 놈의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부랑당 패에 들어?……”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 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오죽이나……”

윤 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건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감을 하듯 고향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느냐야? 부랑당 같은 수령(守令)들이 있느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넌 다 지내가고오……. 자 부아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헌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남은 수십만 명 동병(動兵)을 히여서, 우리 조선 놈 보호히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으응?…… 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허는 것이여,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 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멍멍거리구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 놀 부랑당 패에 참섭을 헌담 말이여, 으응?”

땅 방바닥을 치면서 별떡 일어섭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든 요란스럽고 팔팔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관권들은 방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거나 않는가 하는 의구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 착작 깎아 죽일 놈! …… 그놈을 내가 핀지히여서, 백 년 지넌 살리라고 헐 테여……. 오냐, 그놈을 삼천 석거리 는 직분(分)히여 즐라구 히였더니, 오냐, 그놈 삼천 석거리를 툇툇 팔아서, 경찰서오다가 사회주의 허는 놈 잡아 가두는 경찰서오다가 주어 버릴걸! 으응, 죽일 놈!”

- 채만식, 「태평천하」

성남여자고등학교 (경기)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윤 직원이 분노하는 이유는 진심으로 윤종학의 안위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 ② 윤 직원은 평소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윤창식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 ③ 윤종수는 자신이 군수가 되는 것이 윤 직원에게 아무런 도

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④ 윤 직원은 전보 사실을 알고 나서 집안의 모든 재산을 경찰서에 기부하려고 결심한다.
- ⑤ 진시황이 자식 ‘호해’ 때문에 진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처럼, 윤 직원도 윤종학이 가문에 해를 끼치는 것을 보지 못한다.

성남여자고등학교 (경기)

1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인공의 운명을 암시해 준다.
- ② 윤 직원 집안의 몰락을 예고한다.
- ③ 사건 전개에 극적인 반전을 유도한다.
- ④ 윤 직원과 윤 주사의 관계가 달라지는 계기가 된다.
- ⑤ 윤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피검되었음을 알린다.

성남여자고등학교 (경기)

1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태평천하」는 일제 강점기의 상황을 살기 좋은 시절이라고 믿는 ‘윤 직원 영감’과 당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한 풍자 소설이다. 서술자는 경어체 문장을 통해 판소리하는 창자(唱者)처럼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인물을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있다. 또한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작가의 생각과 판단이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부정적인 인물일수록 희화적 풍자가 강해지는데, 풍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인물은 둘째 손자인 ‘윤종학’뿐이다. 이는 ‘윤종학’에 대한 작가의 긍정적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① 당대 사회를 태평천하로 인식하는 인물의 말을 통해 당대 사회의 모순을 풍자하고 있군.
- ② 윤 직원이 분노하는 모습을 짐승처럼 포효하는 모습으로 표현하여 인물을 희화화하여 풍자하고 있군.
- ③ ‘-니디’ 등의 경어체 문장을 사용하여 판소리 창자처럼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인물을 조롱하고 있군.
- ④ 풍자의 대상인 윤 직원이 윤종학을 비판하는 모습에서, 윤종학은 작가의 긍정적 입장이 반영된 인물임을 알 수 있군.
- ⑤ 윤 주사를 아버지로, 윤 직원을 경망스런 아들로 위치를 바꾸는 것이 맞겠다고 서술한 부분에서, 인물에 대한 작가의 긍정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군.

4-(1) 제망매가

4-(1) 제망매가

1. 3 구성에 따른 시상 전개 구성

기(1~4행)	서(5~8행)	결(9~10행)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안타까움 → 화자의 정서 제시	혈육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무상 → 화자의 정서 고조	인간적 고뇌의 종교적 승화 → 정서의 전환과 사상의 마무리

2. 시구의 비유적 의미와 효과

시어	의미와 효과
이른 바람	'요절'의 의미로, 누이의 요절에 대한 비애감을 드러냄.
떨어질 잎	'죽은 누이'의 의미로, 죽은 누이로 인한 인생의 무상감을 드러냄.
한 가지	'같은 부모'의 의미로, 죽은 누이와 혈육 관계임을 드러내고 안타까움을 강조함.

3. 「오백년도읍지를~」과의 비교

	「제망매가」	「오백년도읍지를~」
갈래	10구체 향가	고려 말 시조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서-결'의 3단 구성 • 낙구(결 부분)의 첫머리에 '아야'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장-중장-종장'의 3단 구성 • 종장의 첫머리에 '어즈버'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냄.



10구체 향가와 시조 모두 3단 구성을 취하며, 같은 기능을 하는 감탄사가 존재한다는 점으로 볼 때, 10구체 향가의 구성 방식과 낙구의 형식이 시조에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	生死(생사) 길흔 ㉠이에 이사매 ㉡머뭇그리고, 나는 가늠다 말사도 물다 니르고 ㉢가늠넛고.
[B]	어느 구슬 이른 브르매 이에 데에 뿌러덜 님곤, 혼든 가지라 나고 가는 곧 모드르든 ㉣아야 ㉤미타찰(彌陀刹)아 맛보올 나 도(道) 닷가 ㉥기드르리고다.
- 월명사, 「제망매가」	

대성여자고등학교 (광주)

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적 대상의 부재를 하강적인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형상화 하고 있다.
- ② 시적 상황을 자연현상에 비유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영탄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직접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 ④ 대조되는 시적 공간을 통해 대상과의 단절에 따른 체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시적 대상의 말을 인용하여 화자의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 내고 있다.

대성여자고등학교 (광주)

2.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 2개)

<보기>
월명사가 일찍 죽은 누이를 위하여 재(齋)를 올리고, 향가를 지어 제사를 지냈다. 월명사가 향가를 부르자 문득 광풍(狂風)이 불어 지전(紙錢-종이로 만든 저승의 여비 돈)을 서쪽으로 날려 없어지게 하였다.

- ① ㉠ : 화자가 머물고 있는 '이승'으로 '누이'의 죽음이 일어난 공간을 의미한다.
- ② ㉡ : 행위의 주체를 '누이'로 보면 삶에 대한 미련으로, '화자'로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 : 감탄형 종결어미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설의적 의문으로 드러난다.
- ④ ㉣ : '누이'와의 재회를 기대하는 공간으로 화자의 미지(未知) 세계에 대한 동경이 나타난다.
- ⑤ ㉤ : 화자의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로 미래 지향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대성여자고등학교 (광주)

3. 이 시의 시적 화자의 시적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과 가장 유사한 작품은?

- ①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나 /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 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 ②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 ③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④ 신이나 삼아 줄 걸 슬픈 사연의 / 울음이 아로새긴 육날 메투리 / 은장도 푸른 날로 이냥 베어서 /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 드릴걸.
- ⑤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 간간이 / 자유를 말하는데, /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대성여자고등학교 (광주)

4. [A]와 [B]의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서술하고, 이 시와 <보기>의 형식적인 공통점 두 가지를 밝히시오. 또한 ㉠의 시적 기능 두 가지를 서술하십시오.

<보기>
봄이 왔다 후퇴 소식을 모르더니 냇가에 푸른 버들 네 온저 아도괴야 어즈버 인간 이별을 또 엮지 후늬다.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www.chongmangug.co.kr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생사(生死) 길은	生死路隱
에 있으며 머뭇거리고,	此矣有阿米次伊遣
㉠나는 간다는 말도	吾隱去內如辭叱都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毛如云遣去內叱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於內秋察早隱風未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한 가지에 나고	一等隱枝良出古
가는 곳 모르온저.	去奴隱處毛冬乎丁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阿也彌陀刹良逢乎吾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道修良待是古如
	- 월명사, 「제망매가」 -
(나)	
오백 년(五百年) 도읍지(都邑地)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산천(山川)은 의구(依舊)히되 인걸(人傑)은 간 디 업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솟이런가 흐노라.	
	- 길재 -

거제옥포고등학교 (경남)

5.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정제되고 세련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② (나)는 대구법, 영탄법 등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작품을 3단으로 구성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처한 상황에 대한 무상감과 애절한 정한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 ⑤ (가)의 낙구(落句) 첫 머리에 오는 감탄사가 (나)의 종장의 첫 음보에 영향을 주었다.

거제옥포고등학교 (경남)

6.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 ② ㉡ : 시적 대상이 요절(夭折) 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③ ㉢ :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인생무상의 정서가 드러난다.
- ④ ㉣ : 시적 화자와 대상이 같은 부모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 ⑤ ㉤ : ㉣을 기준으로 시상을 전환하고 정서를 집약하고 있다.

원북고등학교 (서울)

7.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보기>
향가는 삼국 시대 말에 발생하여 통일 신라 시대에 성행하고 고려 시대 초까지 향유되었던, 우리말로 된 시가를 통칭하는 용어로 「균여전」 등에 실려 전해진다. 향가는 한자를 활용하여 우리말을 기록한 향찰이나 이두 등의 표기법을 사용하였다. 향가는 대개 4구체, 8구체, 10구체로 구분하는데 4구체가 민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8구체나 10구체는 개인 서정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10구체 향가는 형식적인 면에서 고려 말기부터 창작된 평시조와 대응되는 점에서 우리 시가의 전통적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

- ① (가)는 민요적 성격이 잘 드러나 있다.
- ② (가)의 음보는 (나)의 음보에 대응된다.
- ③ (가)와 (나)는 향찰과 이두 등의 표기법을 사용하였다.
- ④ (가)의 낙구 첫 어절은 (나)의 종장 첫 구에 대응된다.
- ⑤ (가)의 '3-5-2행'의 3단 구성은 (나)의 '초-중-종장'의 3단 구성에 대응된다.

광양고등학교 (서울)

8.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하고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이다. 빈칸 ㉠, ㉡, ㉢에 들어갈 어휘로 가장 알맞은 것을 적으시오.

<보기>
향가는 대개 4구체, 8구체, 10구체로 구분하는데 4구체가 민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8구체나 10구체는 개인 서정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10구체의 낙구 첫 어절에 등장하는 감탄사는 시조종장의 첫 구에 대응된다는 점에서 우리 시가의 전통적 흐름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학생들의 이해한 내용
- (가)의 '아아'는 전승의 측면에서 (나)의 시조 종장의 감탄사인 (㉠)와 영향관계가 있군. 이런 감탄사가 담당하는 공통의 기능은 시상을 (㉡)시키는군. - (가)의 '4구+4구+2구' 형태는 (나)의 '초장+중장+종장'의 (㉢)에 형성에 영향을 준 것이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생사(生死) 길은	生死路隱
에 있으며 머뭇거리고,	此矣有阿米次伊遣
나는 간다는 말도	吾隱去內如辭叱都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毛如云遣去內叱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於內秋察早隱風未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한 가지에 나고	一等隱枝良出古
가는 곳 모르온저.	去奴隱處毛冬乎丁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阿也彌陀刹良逢乎吾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道修良待是古如

- 월명사, 「제망매가」 -

(나)

오백 년(五百年) 도읍지(都邑地)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산천(山川)은 의구(依舊)히되 인걸(人傑)은 간 디 업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흐노라.

광양고등학교 (서울)

9. <보기>에서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골라 묶은 것은?

<보기>

ㄱ.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서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ㄴ. 영탄법을 통해 화자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ㄷ. 주술적 시어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ㄹ. 대구의 형식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ㄱ, ㄹ ④ ㄴ, ㄷ
- ⑤ ㄷ, ㄹ

광양고등학교 (서울)

10. ㉠ ~ ㉣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죽은 누이'를 ㉡은 '누이의 이른 죽음'을 의미하며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다.
- ② ㉠은 '누이의 요절'을 ㉢은 '극락세계'를 의미하며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이다.
- ③ ㉡은 '죽은 누이'를 ㉣은 '고려가 융성했던 시절'을 의미하여 인생무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대상이다.
- ④ ㉢과 ㉣은 화자가 감정을 자연물에 이입한 대상으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는 소재이다.
- ⑤ ㉢과 ㉣은 화자가 추구하는 세계로 절망적인 상황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덕산고등학교 (경기)

11. (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상의 전환을 알리는 시어가 사용되고 있다
- ② 영탄적 어조로 화자의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내용상 '기-서-결'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④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⑤ 향가의 형식 중 가장 정제된 10구체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덕산고등학교 (경기)

12.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나는 간다'는 누이가 죽기 전에 화자에게 했던 말이다.
 ㄴ. '가을 이른 바람'은 누이가 초가을에 세상을 떠났음을 의미한다.
 ㄷ. '떨어지는 잎'은 누이와 이별한 화자의 외로운 신세를 나타낸다.
 ㄹ. '한 가지'는 화자와 누이가 같은 혈육임을 드러낸다.
 ㄹ. '미타찰에서 만날 나'는 극락세계에서 누이와 재회할 것을 소망하는 화자를 뜻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 ③ ㄹ, ㄹ ④ ㄱ, ㄹ, ㄹ
- ⑤ ㄴ, ㄷ, ㄹ

덕산고등학교 (경기)

13. (가)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유리(琉璃)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 먹은 벌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정지용, '유리창'

4-(1) 청산별곡

4. 특징

'a-a-b-a'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함.	⇒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애 살어리랏다. a a b a
3·3·2조의 3음보 율격으로 리듬감을 드러냄.	⇒	말위랑√드래랑√먹고√청산애√살어리√랏다. 3 3 2 3 3 2
'ㄹ'과 'ㅇ' 음의 반복으로 경쾌한 느낌을 주어 음악적 효과를 거둠.	⇒	알리알리 알랑(라)성 알라리 알라 잉 무든 장글란, 이링공 더링공

5. 후렴구의 기능

알리알리 알랑(라)성 알라리 알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한 의미 없이 악률에 맞추기 위한 후렴구 • 악기 소리의 의성어로서 흥을 돋우고 노래의 절주에 맞추기 위한 것 • 'ㄹ, ㅇ'의 연속음으로 매끄러운 음악적 효과(두드러진 활음조 현상)를 나타내며 낙천적이고 명랑한 느낌을 주는데 이는 작품의 정서와 상반됨. • 각 연을 분절하고, 각 연마다 반복되어 구조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줌.
--------------------------	--

6.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

화자	작품의 해석
'유랑민'이라는 견해	고려 후기에 계속되는 전란 등으로 삶의 근거지를 떠나 이리저리 떠돌 수밖에 없었던 유랑민의 고통과 삶의 비애를 나타낸 노래임.
'실연한 사람'이라는 견해	실연의 아픔을 잊기 위해 청산으로 도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현실 도피적인 노래임.
'당대 지식인'이라는 견해	속세의 번뇌를 떨쳐 버리기 위해 청산을 찾아 위안을 구하면서도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주는 지식인의 노래임

7. 한림별곡과의 비교

	「청산별곡」	「한림별곡」
갈래	고려 속요	경기체가
작가층	고려 시대의 평민 / 지식인	고려 후기의 신진 사대부
내용	고려 민중의 삶과 비애, 고뇌	신진 사대부의 학문적 자부심과 긍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이랑공 더링공 햅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지던 돌코.
 미리도 괴리도 업시 마저서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녹모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히금을 허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비브른 도기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미와 잡스와니 내 엇디 흐리잇고.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

*살어리랏다 ①살리라. 살고 싶구나. ②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우러라 ①올어라(명령형). ②우는구나(감탄형). ③노래하라(명령형)/
 *가던 새 ①날아가던 새. ②갈던 새래.
 *잉 무든 장글란 ①이끼 묻은 쟁기일랑. ②날이 무딘 병기(兵器)랑. ③이끼 묻은 은장도(銀粧刀)랑.
 *예정지 아직 정확한 뜻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외따로 떨어져 있는 부엌'이라고도 함.
 *사스미 ①사슴이. ②'사르미'의 오기(誤記)

원목고등학교 (서울)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작품의 정서와 상반되는 명량한 느낌의 후렴구를 사용하고 있다.

- ⑤ 설의적 표현을 통해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원목고등학교 (서울)

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청산별곡>은 고려 가요의 대표작으로, 현실을 벗어난 공간을 소망하고 있지만, 운명적 고뇌에 체념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심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고려 시대 불안한 대내외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상징성 짙은 시어를 사용하고 있어 문학성도 인정받고 있다. 나아가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실의 괴로움과 비애를 해소하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① 현실을 벗어난 '물 아래'를 동경하는 화자의 복잡한 정서를 엿볼 수 있다.
- ② '밤'은 불안한 대내외적 현실에서 비롯된 괴로움을 잠시나마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다.
- ③ '돌'은 운명적 고뇌를 상징하는 시어로, 비애를 촉발하는 매개체이다.
- ④ '히금'은 불안한 대내외적 현실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낸다.
- ⑤ '강수'는 현실의 괴로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짐작하게 한다.

대전지족고등학교 (대전)

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려 속요는 고려 시대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 시가로, 평민들의 성정이 묻어나는 내용이 다수를 이룬다. 하지만 고려 후기는 무신들의 집권과 내란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심했을 뿐만 아니라, 외세의 침입으로 국토가 황폐화되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 고독감, 외로움과 불안 의식, 체념과 좌절, 절망 등을 담은 노래들이 불리기도 하였다.

- ① 1연의 '청산'과 6연의 '바탈'은 현실 도피의 공간이자 화자의 이상향이라 볼 수 있겠군.
- ② 2연의 '새'는 화자의 외로움을 위로하는 동병상련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3연의 '잉 무든 장글란'을 '이끼 묻은 쟁기'로 해석할 경우 화자는 전란으로 농토를 잃은 유랑민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4연의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밤'은 화자가 홀로 보내야 하는 시간으로 고독과 절망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⑤ 5연의 '돌'에 맞아 우는 화자의 모습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운명으로 인식하며 희망을 버리고 단념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멸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이랑공 더렁공 허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미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서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누모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허금(奚琴)을 허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비브른 도기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미와 잡스와니 ㉣내 엇디허리잇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작자미상, 「청산별곡」 -

경기여자고등학교 (서울)

4.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이 작품은 내우외환에 시달리던 고려인들이 겪었던 삶의 애환과 비애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② B : 1연의 '청산'을 이상향으로 해석하면 ㉠은 시적 화자가 원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 비유적 표현일거라고 생각해.
- ③ C : 2연의 '우러라'를 '노래하라'로 해석해보니 ㉡은 시적 화자가 청산에 살면서 얻은 만족감을 감정 이입한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 ④ D : 3연의 '가던 새'를 '날아가던 새'로 해석하면 ㉢은 '물 아래'의 속세에 대해 화자가 가지고 있는 미련을 드러내는

구절이 되겠군.

- ⑤ E : 8연의 '조롱곳 누르기 미와 잡스와니'를 '조롱박꽃 누룩이 매워 (나를) 붙잡으니'로 해석하면 ㉣은 화자가 고통의 근원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한 채 솔로 삶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겠군.

경기여자고등학교 (서울)

5.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제1장>
 元淳文 仁老詩 公老四六
 원순문 인노시 공노소륙
 李正言 陳翰林 雙韻走筆
 니정언 단한림 상운주필
 沖基對策 光鈞經義 良鏡詩賦
 통기대척 광균경의 량경시부
 위 試場 人 景 其 엇더허니잇고
 시당 경
 (葉) 琴學士의 玉筍門生 琴學士의 玉筍門生
 금혹스 옥순문싱 금혹스 옥순문싱
 위 날조차 몇 부니잇고

- 한림제유, 「한림별곡」에서

- ① 윗글은 분연체를 이루지만 <보기>는 단연으로 된 작품이다.
- ② 윗글과 <보기>는 모두 3음보의 율격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윗글과 <보기>는 모두 화자의 내면 정서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윗글과 <보기>의 작가 층은 속세와 거리를 두고자 하는 지식인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 ⑤ 윗글은 후렴구를 통해 형태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얻고 있지만 <보기>에는 후렴구가 없다.

경기여자고등학교 (서울)

6. 윗글을 <보기>와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연을 쓰고, <보기>의 밑줄 친 의미를 상징하는 시어를 찾아 쓰시오.

<보기>

「청산별곡」의 시적 화자가 겪는 비애의 원인은 화자의 외부에 있음을 알 수 있고, 화자는 갑자기 찾아온 비극적 운명 앞에서 체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임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이링공 더링공 허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툼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누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허금을 허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비브른 도기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미와 잡스와니 내 엇디 허리이고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

양재고등학교 (서울)

7. 윗글의 5연과 8연에 나타나는 시적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양재고등학교 (서울)

8.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속세와 대조되는 마음의 안식처, 이상향을 뜻한다.

- ② ㉡ : 후렴구로서 리듬감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다.
- ③ ㉢ : 시적 화자가 감정을 이입하는 대상이자 동병상련을 느끼는 대상이다.
- ④ ㉣ : '날아가던 새' 또는 '갈던 새'로 해석한다.
- ⑤ ㉤ : 낮 동안의 이런저런 상념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아가는 시간이다.

광영고등학교 (서울)

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연의 '청산'과 4연의 '바르' : 가고 싶은 이상향
- ② 2연의 '새'와 3연의 '새' : 감정 이입의 대상
- ③ 1연의 '멀위'와 6연의 '누므자기' : 보잘 것 없는 삶
- ④ 3연의 '물 아래'와 5연의 '괴리도' : 속세에 대한 미련
- ⑤ 7연의 '드로라'와 8연의 '비조라' : 적극적 문제 해결 의지

광영고등학교 (서울)

10. 윗글의 화자의 처지를 고려하여, ㉤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해성여자고등학교 (서울)

11. 윗글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산'과 '바르'은 화자가 살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고단한 현실을 벗어나서 가는 도피처로서의 성격을 띤다.
- ② '널라와 시름 한 나도'는 화자의 시름이 더 많다는 뜻으로, 화자와 새의 대조법을 통해 시름의 깊이를 표현한다.
- ③ 작가를 유랑민으로 보았을 때, '임무든 장글란'은 '이끼 문은 쟁기일랑'으로 해석하며 이는 삶의 터전을 오랫동안 떠나있음을 암시한다.
- ④ '마자셔 우니노라'를 통해 인간에게 닥친 운명적 비애에 화자는 체념적인 태도로 일관함을 알 수 있다.
- ⑤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허금을 허거를 드로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기적을 통해 해결하려는 절박한 심정을 드러낸다.

3-(1) 어미 발과 새끼 발

1.④ 2.⑤ 3.② 4.① 5.⑤

3-(1) 송인

1.③ 2.④ 3.⑤ 4.자연과 인간사가 대비된 부분은 1행과 2행이며, 봄의 정취와 인간사의 애달픈 이별을 대비하여 슬픔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5.③ 6.④ 7.① 8.③ 9.① 10.④ 11.③ 12.④ 13.④ 14.② 15.③⑤ 16.① 17.④ 18.⑤ 19.③

3-(2) 사미인곡

1.② 2.⑤ 3.④ 4.③ 5.(1) 가을, '서리', '기러기' (2) 힘들게 사는 백성이나 화자가 있는 곳까지 임금이 선정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1)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2)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여성의 마음에 빚대어 노래함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게 한다. 7.⑤ 8.②③ 9.'님의 옷'은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을 의미한다. 10.④ 11.⑤ 12.② 13.④ 14.㉠ 동풍 ㉡ 녹음 15.③ 16.① 17.② 18.③ 19.④ 20.③ 21.⑤ 22.② 23.④ 24.⑤ 25.③ 26.⑤ 27.(1)은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 (2)는 임금이 선정을 베풀기를 바라는 마음, (3)은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나타낸다. 28.④ 29.④ 30.⑤ 31.④ 32.'연지분'을 통해 시적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다

3-(2) 태평천하

1.④ 2.(1) 판소리적 문제 (2) 윤직원을 조롱하고 희화화하여 인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낸다. 3.② 4.④ 5.④ 6.① 7.'진시황'이 의미하는 인물은 윤 직원 영감이다. '호해'가 의미하는 인물은 윤종학이다. <보기>에서 만리장성을 쌓는 것과 같이 윤 직원 영감은 윤종수와 윤종학이 군수와 경찰서장이 되어 집안을 유지해줄 것을 바랐다 8.⑤ 9.① 10.물을 친 듯이 11.⑤ 12.② 13.(1) 태평천하 (2) 일제강점기에 창작된 이 소설에서 작가는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한 풍자적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14.② 15.④ 16.⑤ 17.⑤ 18.③ 19.③ 20.③ 21.① 22.태평천하 23.④ 24.(1) 망진자는 호야나라 (2) 경찰서장, 군수 (3) 전보 25.④ 26.② 27.② 28.④ 29.⑤ 30.⑤ 31.④ 32.⑤

3-(3) 정선 아리랑

1.① 2.① 3.화자는 ㉠에서 고국인 조선을 떠난 슬픔과 서러움, 조선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4.② 5.③

4-(1) 제망매가

1.④ 2.③④ 3.② 4.[A]는 누이의 죽음에서 두려움과 애처로움을 느끼고, [B]는 누이의 죽음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다.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지며, 마지막 부분에 감탄사가 나타난다. 화자의 정서를 집약해 시상을 정리하고, 작품의 전체적인 마무리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5.④ 6.③ 7.④ 8.㉠ 어즈버 ㉡ 집약 ㉢ 3단 구성 9.④ 10.③ 11.② 12.③ 13.④ 14.② 15.② 16.⑤ 17.③ 18.② 19.㉠ 죽음에 대한 두려움, ㉡ 누이의 요절, ㉢ 같은 부모 20.⑤ 21.①

4-(1) 청산별곡

1.② 2.③ 3.② 4.③ 5.② 6.5연, 돌 7.시적 화자는 5연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고통 때문에 절망하고 있고, 8연은 술을 마셔 고통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8.⑤ 9.① 10.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의 비애를 뜻한다. 11.② 12.③ 13.② 14.윗글의 '물'은 속세를, <보기2>에서 '물'은 사랑, 이별, 죽음 등을 뜻한다. 15.② 16.④ 17.③ 18.④ 19.① 20.② 21.후렴구,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 연과 연을 구분한다.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22.㉠ 시적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 ㉡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 ㉢ 현실의 고통과 외로움을 일시적으로 잊게 하는 매개체 23.④ 24.③ 25.② 26.④ 27.후렴구의 반복, 3음보의 율격, 'ㄹ'과 'ㅇ' 음운의 반복 28.① 29.⑤ 30.(나)는 자연을 아름다운 대상 그 자체로 인식하고 (다)는 자연을 유가적 덕목과 연군의 정, 학문 수양의 의지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31.⑤ 32.④ 33.② 34.② 35.④ 36.④ 37.① 38.실연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속세를 떠나 청산에 들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난 노래이다. 39.② 40.갈던 발 갈던 발 본다. 속세에서 갈던 발 본다. /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속세에서 갈던 발 본다. 41.④ 42.③ 43.① 44.⑤ 45.④

4-(1) 어부사시사

1.① 2.③ 3.① 4.⑤ 5.하사2에서는 '년넝, 청약립', 추사 9에서는 '서리, 치운 줄을'이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이다. 6.⑤ 7.②연은 술을 마셔 고통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8.① 9.③ 10.'도선'은 낚싯배, 즉 자연에서의 삶을 의미하고, '부세'는 속세를 의미한다